

동사성 분석을 통한 청소년 주체의 성장 양상 연구

—소설 『완득이』를 중심으로

강서희*

국문초록

본고는 현대 성장 소설에 나타난 청소년 주체의 성장 양상을 사회와 주변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성장 소설로 『완득이』를 선정하여 청소년 주체의 성장 양상을 살펴보았다. 소설 이면에 작용하는 주체들의 관계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체계 기능 언어학의 동사성 체계를 사용하여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청소년 주체 도완득의 동사성 변화 양상이 다른 주체와의 변화 양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양상이 청소년 주체의 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도완득의 동사성 변화 양상은 사회적 약자인 아버지, 삼촌보다 담임 교사인 이동주의 동사성 변화 양상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도완득의 동사성 변화 양상과 여성 주체들의 동사성 변화 양상을 살펴볼 때, 상대적으로 남성 주체들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본고는 체계 기능 언어학에 기반을 둔 양적 접근이 문학 작품 속 주체들 간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접근을 통해 성장소설 속 청소년의 성장 양상을 주변 주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였다. 문학 작품에 양적 분석을 적용하는 것은 연구자가 지닌 편향성 극복과 문학 작품 속 주체들의 사회적 속성이 가지는 의미를 드러내는 데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소설 『완득이』, 동사성, 체계 기능 언어학, 양적 접근, 성장 소설

목 차

1. 들어가며	4. 소설 『완득이』의 청소년 주체 성장 양상
2. 체계 기능 언어학과 문학 작품 분석	5. 나가며
3. 연구 방법	

1. 들어가며

성장소설은 미성숙한 주인공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현실 인식을 이루기까지의 내면적 변화를 탐구하는 소설이다. 성장소설은 한 인간의 성장과정을 소설 공간을 통해 증폭시켜 표현한다. 현대에는 성인들은 문학적 가상공간을 통해 구현된 성장 경험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고, 청소년들은 이에 공감하며 과거의 통과제의에 버금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¹ 성장소설에는 성장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과 지향점이 나타나 있고 성장소설 속 청소년 주체들의 성장의 양상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최근의 성장소설은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의 성장소설에서는 자아와 세계가 불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상황에서 자아의 탐색은 사회와 연관을 맺지 않고 진행되었다. 나르시시즘적 자아의 환멸이 강조되고, 사회와 관계하지 않는 성장이 드러났다. 그러나 2000년대 창작된 성장소설에서는 화해와 사랑의 소망을 외부로 드러내고, 사회와의 접점을 드러낸다.²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성장소설에서 ‘성장’의 의미와 양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자아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장하는 자아와 주변인물과의 관계, 그리고 성장하는 자아와 사회와의 관계

1 나병철, 「청소년 시집의 두 유형과 성장의 문학교육적 의미」, 『청람어문교육』 53, 2015, 401~402면.

2 선주원, 「환상적 공간을 통한 가족 서사의 재구성: 2000년대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35, 2015, 146면.

에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장소설 속 청소년 주체의 성장 양상을 주변의 다른 주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성인 주체 및 다른 청소년 주체들이 청소년 주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의 이론적 기반 아래 질적으로 탐구되었다. 이런 질적 탐구는 관련 지식이 풍부한 문학 비평가의 통찰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제한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를 객관성을 담보하여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비판적 담화 분석의 방법론을 통해 청소년 주체의 성장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비판적 담화 분석은 텍스트의 언어와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이다.³ 비판적 담화 분석은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와 권력관계를 밝혀내려고 한다. 비판적 담화 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 틀 중 이 연구에서는 Halliday의 체계 기능 언어학의 여러 개념 중 주체가 구현되는 양상을 볼 수 있는 ‘동사성(transitivity)’에 주목한다. 그리고 다른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동사성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할 성장 소설로 김려령의 『완득이』를 선택하였다. 김려령의 『완득이』는 한국 사회에서 소외받는 약자들을 등장시켜 그들과 함께 연대하며 성장하는 청소년 주체를 설득력 있게 그리고 있다. 『완득이』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제1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흡입력을 인정을 받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나아가 성장 소설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전형적인 기법과 특성을 잘 보여주는 소설로 알려져 학술적으로 연구되고 있다.⁴ 또한 주로 다문화사회

3 이승연, 「사회와 텍스트 분석을 위한 비판적 담화 분석 방법의 이용: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8, 2016, 175면.

리는 소설 외적 배경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⁵ 혹은 국어 교육에서 활용성을 중심으로⁶ 연구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주체의 성장 양상을 다른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탐구한 연구는 미진하다. 현대 성장소설에서 청소년 주체 양상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완득이』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김려령의 『완득이』에 나타난 다양한 주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현대 성장소설에서 성장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써 Halliday의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 동사성(transitivity) 개념을 활용하였다. 동사성의 범주에 따른 양적 분석을 통해 『완득이』의 주인공 도완득의 성장 양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2. 체계 기능 언어학과 문학 작품 분석

1) 체계 기능 언어학의 동사성(transitivity) 체계

체계 기능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은 언어 그 자체나 상황 맥락

4 나병철, 「청소년 시점의 두 유형과 성장의 문학교육적 의미」, 『청람어문교육』 53, 2015.

김화선, 「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성장'의 문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3, 279~300면, 2008.

5 권미영, 박보영,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이론으로 본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주체화 문제—영화 완득이에 대한 비판사회복지학적 접근」, 『한국융합인문학회』 1, 2013.

이미림, 「다문화성장소설연구」, 『현대소설연구』, 51, 2012, 373~401면.

정선주, 「소설 『완득이』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판타지 고찰—지젝의 이데올로기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6 이지현, 「성장소설을 통한 현대소설 교육방안 연구—김려령의 『완득이』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성경수, 「청소년 문학과 문학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뿐만 아니라 담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속한 사회적 맥락이 그 언어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려 한다.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 언어를 분석하는 것은 언어의 표면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에 작동하는 사회적 힘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⁷ 텍스트 이면의 사회적 힘을 밝혀내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체계 기능 언어학의 체계는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신문 등 전통적인 인쇄 매체뿐 아니라, 이미지, 공간 건축 등 폭넓은 분야의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⁸

Halliday는 담화의 주제나 활동 내용을 나타내는 영역(Field)는 동사성 과정, 과정, 상황의 관념적 의미(Ideational meaning)으로 구현된다고 하였다. Halliday는 의미를 구현하는 기본 문법 단위는 절이며, 이를 형태(figure)라고 불렀다. 형태는 동사로 구현되는 ‘과정’, 그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 그리고 과정의 상황적 맥락을 형성하는 ‘상황’ 등으로 구성된다.⁹ 이와 같은 체계에서 주체는 동사성 과정 통해 실현된다. 즉 과정은 주체가 행동하고, 말하고, 보고, 반성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설 『완득이』의 한 문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소설 『완득이』의 동사성 체계에 따른 분석 예시

주체(참여자)	과정	목표
담임 똥주는	톡톡 쳤다.	내 머리를

동사성 과정은 물질적(material), 정신적(mental), 언어적(verbal), 관계적(relational)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¹⁰ 각 과정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주세형 외, 『장르, 텍스트, 문법』, 박이정, 6~8면.

8 이정아, 「과학수업담화 연구의 배경과 전개」, 『한국초등교육』 23, 2012, 4면.

9 Halliday, et al,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Routledge. 2013, pp.125-300.

[표 2] 과정 유형

물질적 과정	주체의 외현적 행위가 나타나는 상황을 표현	주체(참여자)	과정	목표
		담임 똥주는	톡톡 쳤다.	내 머리를
정신적 과정	주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상황을 포착함	주체(참여자)	과정	목표
		(나, 완득이는)	정말 싫다.	저 고무 모형 닭
관계적 과정	주체의 속성을 드러내거나 소유하는 관계를 나타냄.	주체(참여자)	과정	특징, 속성
		그는	하다.	건강
언어적 과정	말하거나 보고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과정	말하는 사람	과정	인용구
		(정윤하가)	라고 한다.	“비켜줄래?”

물질적 과정은 주체의 구체적인 외현적 행위가 나타나는 상황을 표현한다. 즉, 주체가 타자에게 어떤 행위를 가하는 상황이거나, 주체 자신에게 어떤 외현적 행위를 하는 상황을 뜻한다. [표 2]에 제시된 예에서 주체는 ‘담임 똥주’이다. 이동주가 다른 이의 머리를 ‘쳤다.’라는 외현적 행위가 나타나 있다. 이 외현적 행위는 타인들의 관찰 가능한 부분이다.

정신적 과정은 내면적 의식 행위를 표현하는 과정이다. 정신적 과정은 ‘생각하다’, ‘상상하다’와 같은 인지적 상황, ‘좋아하다’와 같은 감정적 상황, ‘보다’, ‘듣다’와 같이 감각을 나타내는 상황과 ‘읽하다’와 같이 욕구를 가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표 2]에서는 주체인 완득이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을 예시로 들고 있다. 물질적 과정과 달리 내면의 상황을 포착하여 표현한 언어를 정신적 과정이라 한다.

관계적 과정은 주체와 상황 참여자간의 관계를 형성한다. 주체의 속성을 드러내어 그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며, 상황 참여자들의 대응 관계를 보

10 Halliday은 이 과정의 유형을 존재적(Existential) 과정, 행동적(Behavioral) 과정을 더하여 총 6가지로 제시하였다. 존재적 과정은 무엇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완결적 의미를 더해준다. 존재적 과정은 영어의 There + be 동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계적 과정과 의미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인물 주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존재적 과정은 관계적 과정에 포함하고자 한다. 행동적 과정은 주체의 생리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행위로 상황을 표현한다. 그러나 물질적 과정 혹은 정신적 과정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여주거나, 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게 속해 있는 상황, 상황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표 2]에 제시된 부분은 주체의 특성을 드러내어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언어적 과정은 말하거나 보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언어적 과정은 말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인용절을 이끈다. 혹은 ‘칭찬하다’ 등과 같이 특정한 대상에 대한 언어적 발화를 하는 상황을 나타내기도 한다. [표 2]는 주체인 정윤하가 언어적 발화를 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 유형은 언어의 속성에 따라 나뉜다.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어휘들은 의미에 따라 더 세부적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 과정을 의미적 하위 영역으로 창조적 과정과 변형적 과정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의미의 세부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은 그 의미적 특성이 문맥의 의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류하는 이의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2) 문학 작품의 동사성 분석

문학 작품 또한 체계 기능 언어학으로 분석할 수 있다. 문학 생산자와 수용자는 언어로 구현된 문학 작품을 통해 소통한다. 생산자와 수용자는 같은 ‘해석 공동체’에 속해 있다. 같은 해석적 공동체에 속한 생산자와 수용자는 당대 사회의 윤리와 세계관을 공유한다. 이는 서사의 전개와 수용의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수용자들의 윤리적 연대와 가치관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사회의 가치를 공고히 한다. 이처럼 해석적 공동체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에 의해 작품 자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미적 개성이 수용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은 이 해석적 공동체가 알고 있는 언어적 감각과 문법적 규칙을 통해 문학 작품으로 표상된다. 따라서 문학에 구현

된 언어는 개개인으로 독립된 언어가 아니며, 해석 공동체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 언어이다. 체계 기능 언어학의 분석 방법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학 작품의 언어 이면에 숨겨진 의미들을 밝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학에서 체계 기능 언어학의 방법론의 적용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학자로 Fish가 있다. Fish는 Halliday의 주장, ‘단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주장을 부정하지 않으며, 새로운 측면을 보여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¹¹

문학 작품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체계 기능 언어학의 요소는 동사성 체계가 있다. 동사성 체계에 따른 분석은 텍스트의 특징을 분석하여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권력 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같은 사건도 저자에 따라 다르게 묘사될 수 있다. 동사성은 어떤 관점과 상황에서 주체가 구현되었는가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사성 분석은 관점의 확인이 중요한 신문 텍스트, 혹은 교과서 텍스트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텍스트 분석에서는 한 텍스트에서 많이 나타나는 과정 유형에 따라 텍스트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 두드러진다. 이창수의 연구에서는 신문 기사를 분석하고, ‘경찰’ 주체와 ‘시위대’ 주체의 표현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물질적 과정을 비교하였다. ‘물질적’ 과정은 동적, 공격적, 적극적이라는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 의미론적 하위 분석을 거쳤다.¹² 이해영의 연구에서는 역사교과서의 임진왜란 서술 부분에 대해 동사성 분석을 하였다. ‘조선’과 ‘일본’에 따른 과정이 양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내 서술 관점을 밝혀내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물

¹¹ Fish, S. E.,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i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¹² 이창수, 「비평담화분석을 위한 동사성 분석의 의미론적 모델 연구」, 『언어와 언어학』 56, 2012.

질적 과정은 능동적 서술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묘사되었다.¹³

이처럼 비문학 텍스트에서는 동사성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문학 작품에 적용하는 연구는 이제 시도되는 단계이다. 이런 시도들은 문학 작품 속 특정한 주체를 선정하여 그 주체의 동사성 패턴을 연구한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동물의 역할을 동사성 패턴을 통해 탐구한 연구가 있다.¹⁴ 또 소설에서 주인공의 생각과 감정을 동사성 패턴을 연구하여 나타낸 연구도 있다.¹⁵ Hardstaff의 연구에서는 아동 주체는 사회적 사건을 바라볼 때 ‘목격자 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Nikolajeva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체에 따라 과정 분류를 하였다. 이 소설은 목격자 시점에서 서술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정신적 과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나타났다. 그러나 서술 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 문제에 대응해 나가면서 물질적 과정의 비율이 높아져 가는 양상을 양적으로 예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천둥아, 내 외침을 들어라!』에 나타난 아동 주체, 캐시의 성장 양태를 묘사하였다.¹⁶

이처럼 동사성 분석을 통한 문학 연구는 드러나지 않았던 주체들에 대해 표현되는 속성을 드러내는 데 적절하다. 문학 작품은 특정한 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된다. 동사성 분석은 주체가 실현되는 양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기저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를 유추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나아가 동사성 분석을 통한 문학 작품 분석에서 코퍼스 언어학의 개념

13 이해영, 「동사성 체계를 이용한 역사교과서 서술방식 분석—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7, 2017.

14 Goatly, A., Corpus Linguistics, Systemic Functional Grammar and Literary Meaning—a Critical Analysis of 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Ihla do Desterro*, 46, 2004, pp.115-154.

15 Nguyen, H. T., Transitivity Analysis of “Heroic Mother” by Hoa Pham,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2(4), 2012, p.85.

16 Hardstaff, S., “Papa Said That One Day I Would Understand” Examining Child Agency and Character Development in Roll of Thunder, Hear My Cry Using Critical Corpus Linguistics.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2015.

을 더하여 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즉, 동사성 과정이라는 특정한 틀을 통해 양적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양적 분석은 탐구하는 주체들의 속성이 어떤 양태로 작품 속에서 구현되는지 객관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자가 목표하는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 연구 대상이 되는 주체를 선정하고 분석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는 소설 『완득이』이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도완득의 성장은 주변의 동료와 성인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도완득 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을 함께 살펴보아야 도완득의 성장에 대해 좀 더 복합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주체가 어떻게 주변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체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명료하게 성장의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주인공 도완득의 사회적 속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이 되는 주체를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분석 대상 주체

도완득(나, 완득)	주인공, 남성 청소년, 사회적 약자
이동주(똥주)	도완득의 담임 교사, 성인
아버지·삼촌	도완득의 아버지, 성인 남성·사회적 약자
정윤하	도완득의 동료 및 여자친구, 여성 청소년
어머니(그 분)	도완득의 어머니, 성인 여성·사회적 약자

도완득에게 영향을 주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직계 가족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석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이 둘은 성인 주체로서 청소년 주체 도완득과 비교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도완득의 가족은 사회적 약자이며, 이 소설에 등장하는 다른 성인 주체와 비교될 수 있는 지점이라 보았다. 그리고 직계 가족이 아니지만 ‘유사 가족’으로 기능하는 삼촌을 가족으로 보아 분석 주체로 제시하였다. 삼촌은 성인 남성, 사회적 약자로서 소설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범주로 두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동주(똥주)를 분석 주체로 제시하였다. 똥주 또한 성인 남성 주체로서 도완득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나 삼촌과는 달리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유의미한 비교 분석 지점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비교 주체는 정윤하를 제시하였다. 정윤하는 여성 청소년 주체로서 도완득과 비교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체계 기능 언어학은 상황적 의미가 완결되는 절을 분석의 기본 단위로 제시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절 단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동태 문장은 그 주체와 대상이 모호하므로 제외하였다. 그리고 화자 도완득이 인식하고 서술한 주체들의 동사성을 연구하고자 하므로, 본 연구에는 직접 인용된 대화 내용은 제외하였다. 직접 인용된 대화는 서술자 도완득이 포착한 주체의 발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도완득의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도완득의 직접 자유 사고¹⁷를 통해 내면을 드러낸 부분도 분석하지 않는다. 내면의 사고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 인용된 대화에 가깝다고 판단하였기

17 직접 자유 사고는 인용부호(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생략하여 인물의 생각이나 지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이다. 명확한 발화자와 청자를 명시하지 않아 인물 내적의 사고인지 아닌지 경계를 흐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Chatman, 2008: 202면)

때문이다.

영문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한국어 문학 연구에서는 언어적 특성이 동사성 연구에 난점이 된다. 주어의 생략이 거의 불가능한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코딩 과정에서 생략된 주어를 복원하여 판단한 뒤 코딩을 하였다.

과정 유형은 UAM CorpusTool version 3.3을 통해 수동으로 코딩하였다. 코딩이 끝난 뒤, UAM Corpus Tool의 통계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수를 추출하였다. 빈도수와 주체별, 부별 과정 유형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소설 『완득이』의 청소년 주체 성장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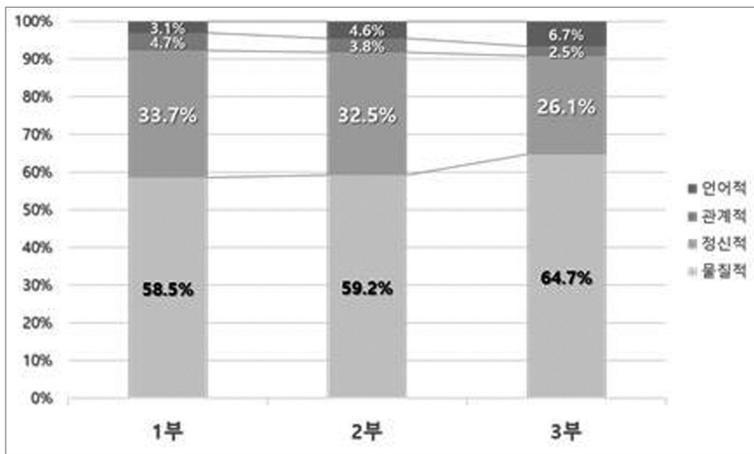
소설 『완득이』의 동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소설 『완득이』의 주체별 동사성 분석 결과

주체	과정 유형	1부	2부	3부	총합
도완득	물질적 과정	113	142	231	486
	정신적 과정	65	78	93	236
	관계적 과정	9	9	9	27
	언어적 과정	6	11	24	41
이동주	물질적 과정	52	28	51	131
	정신적 과정	9	6	4	19
	관계적 과정	7	3	8	18
	언어적 과정	27	8	14	49
아버지·삼촌	물질적 과정	102	21	65	188
	정신적 과정	24	9	20	53
	관계적 과정	12	0	14	26
	언어적 과정	17	4	7	28

정윤하	물질적 과정	5	32	55	92
	정신적 과정	2	6	7	15
	관계적 과정	1	5	5	11
	언어적 과정	0	11	5	16
어머니	물질적 과정	3	15	54	72
	정신적 과정	1	3	13	17
	관계적 과정	4	0	12	16
	언어적 과정	0	2	10	12

이 결과를 주체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별로 나누어 비율을 살펴보았다. 다른 주체에 비해 정윤하는 1부의 빈도가 적고, 어머니는 1부, 2부의 빈도가 적어 비율로 탐구할 경우 그 결과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도완득, 이동주, 아버지·삼촌은 1부, 2부, 3부의 과정 유형 비율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정윤하와 어머니의 양상은 빈도가 낮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인공 도완득의 과정 유형 비율 변화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도완득의 과정 유형 변화 양상

도완득의 과정 비율 변화 양상에서 특징적인 점은 1부부터 3부에 걸쳐 꾸준히 물질적 과정과 언어적 과정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다. 언어적 과정은 주체의 발화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완득이 스스로 타인에게 말한다는 행위를 의식하여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부에서 도완득은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누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한 마디도 안”¹⁸ 하며 타인과 언어를 통해 접점을 잡지 못한다. 그러나 서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내면을 내보이며 타인과 대화하며 소통하며 교류하는 양상을 보인다. 3부에 이르면 핫산, 관장님, 정윤하 등 보다 다양한 타인과 언어적으로 교류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언어적 과정의 증가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양상은 선행연구¹⁹에서 아동 주체가 성장하며 사회적 불합리함(인종 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외현적 행동이 증가하는 양상과 다른 결과이다. 이는 19세기 미국의 인종차별과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나는 소수자 차별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세기 미국에선 억압자와 피 억압자의 구별이 뚜렷하기 때문에 흑인 청소년 주체가 저항할 대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적 부조리함에 관망적이던 청소년 주체가 외현적 행동을 드러내며 저항하는 것이 성장일 수 있다. 그러나 도완득이 사는 21세기에는 차별은 눈에 보이지 않고,²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항하기 어렵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에게 내면화되어 더욱 저항하기 어렵다. 완득이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지만 철저하게 소외된다. 그렇기에 소외된 청소년 주체 완득이의 성장은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

18 김려령, 『완득이』, 창비, 2008, 150면.

19 Hardstaff, S., “Papa Said That One Day I Would Understand” Examining Child Agency and Character Development in Roll of Thunder, Hear My Cry Using Critical Corpus Linguistics.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Vol.46 No.3, 2015.

20 이진경, 나병철 역, 『서비스 이코노미』, 소명출판, 2015.

상은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편견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인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극적 성장의 양상은 완득이의 성장에 대한 기존의 연구²¹⁾와 결과가 일치한다. 그러나 소수자들의 유대를 통해 전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장의 양상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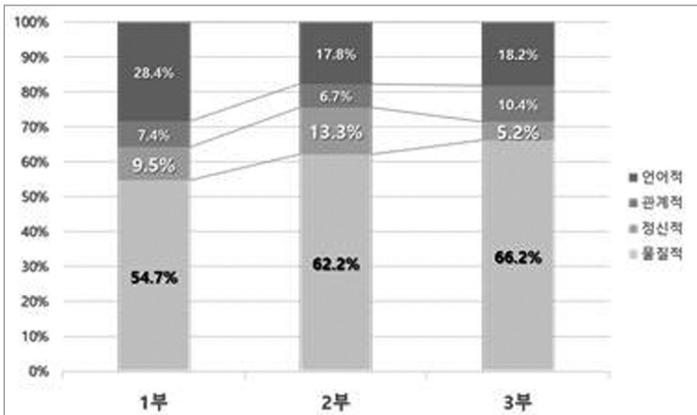


그림 2 이동주의 과정 비율 변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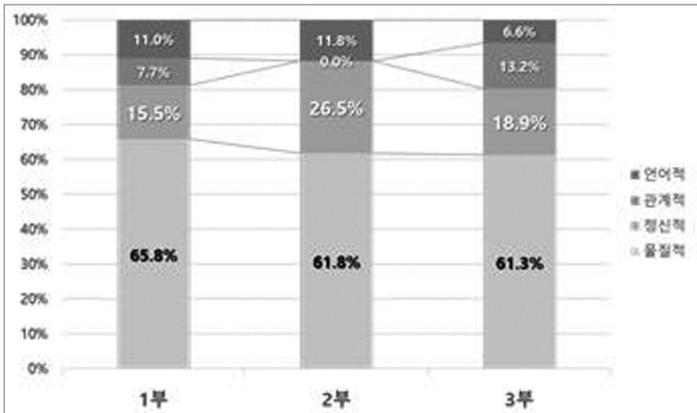


그림 3 아버지와 삼촌의 과정 비율 변화 양상

도완득의 성장 과정에서 직접적인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성인 남성 주체들을 함께 비교해 보았다. 성인 남성 주체는 담임교사인 이동주, 도완득이 아버지, 삼촌이 있다. 이 둘은 성인 남성이라는 속성은 동일하나, 이동주는 비장애인, 도완득의 아버지와 삼촌은 장애인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동주의 과정 비율을 살펴보면 1, 2, 3부에 걸쳐 외현적 행동을 나타내는 물질적 과정과 언어적 행위를 나타내는 언어적 과정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체 도완득의 관점에서 서술된 이동주는 ‘말하고(언어적 과정)’ ‘행동하는(물질적 과정)’ 주체인 것이다. 이동주의 언어적 과정과 물질적 과정은 다른 주체들에 비해 그 비율이 높다.

[표 5] 주체의 언어적 과정과 물질적 과정의 비율

주체	1부	2부	3부
도완득	61.6%	63.8%	71.4%
이동주	83.1%	80%	84.4%
아버지·삼촌	76.8%	73.6%	67.9%

[표 5]에서 이동주의 물질적 과정과 언어적 과정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아버지와 삼촌 등 다른 성인 남성 주체와의 비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성인 남성 주체이지만 이동주는 언어적 과정 비율이 두드러지는 반면, 아버지와 삼촌은 정신적 과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정신적 과정은 인물의 내면적 의식 행위를 나타내는 과정이다. 아버지와 삼촌은 도완득의 관점에서 볼 때 내면적 의식 행위가 포착되고 서술된다. 정신적 과정이 언어적 과정보다 개인적이고 내

적인 활동임을 생각해볼 때, 이동주에 비해 아버지와 삼촌은 타인과의 적극적인 대화 양상이 적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도완득의 과정 비율 변화 양상과 관련지어 볼 때, 동주의 과정 비율 변화 양상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다. 도완득은 언어적 행위(언어적 과정)와 외현적인 행동(물질적 과정)이 1부에서 3부에 걸쳐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 경우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물질적 과정 비율은 함께 늘어나지만, 언어적 과정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도완득의 언어적 과정이 늘어나고, 이동주의 언어적 과정이 줄어들고 있다.

1부에서 이동주의 언어적 과정의 비율은 28.4%에 이르며, 이는 1부에서 도완득의 언어적 과정 비율(3.1%)와 비교해 볼 때 높은 비율이다. 성장 주체인 도완득이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성장의 양상을 드러낸다면, 대화목적은 초반에 촉진하는 가장 큰 주체가 동주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주는 작품 내에서 끊임없이 타인에게 대화를 던진다. 1부에서는 완득이 거의 유일하게 학교에서 대화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대화를 통해 성장의 시작점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3부로 나아갈수록 동주 또한 완득이와 그 주변인들 모두와 마음을 열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연대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이는 언어적 과정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다.

도완득의 과정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주체는 아버지·삼촌보다 이동주이다. 도완득은 세상의 편견 때문에 세상과 화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성장하였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며 청소년 주체를 이끄는 것은 이동주라 볼 수 있다. 기존에 남성 청소년의 성장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완득이』에서는 아버지보다 이동주의 영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도완득의 성장에 있어서는 실제 아버지보다도 이동주가 더욱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주와 아버지·삼촌의 차이는 장애인이거나 아니라는 것이다. 이동주는 장애인이 아니며 교사로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에 놓여 있다. 아버지와 삼촌은 장애인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 즉, 사회적 약자인 아버지와 삼촌의 위치가 도완득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인이 되며, 청소년 주체의 성장 모델로서 성인 남성 주체의 역할이 줄어들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삼촌의 사회적 위치는 도완득에게 상징계의 질서를 대변하는 존재가 될 수 없게 하며, 사회 질서를 대변하는 ‘아버지’의 자리는 이동주가 대변하게 된다. 결국 도완득의 성장은 그 이면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가 이끄는 형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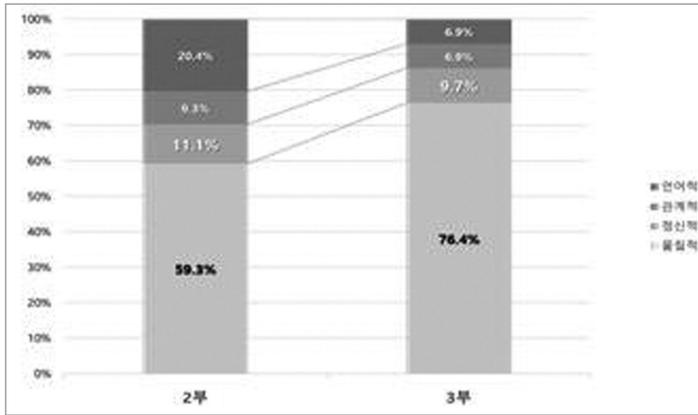


그림 4 정윤하의 과정 비율 변화 양상

정윤하와 어머니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주체들이다. 그러나 정윤하는 1부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어머니는 1부와 2부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완득이의 관점에서 주체가 서술되는 일이 적은 것이다.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빈도수가 부족한 부분을 제외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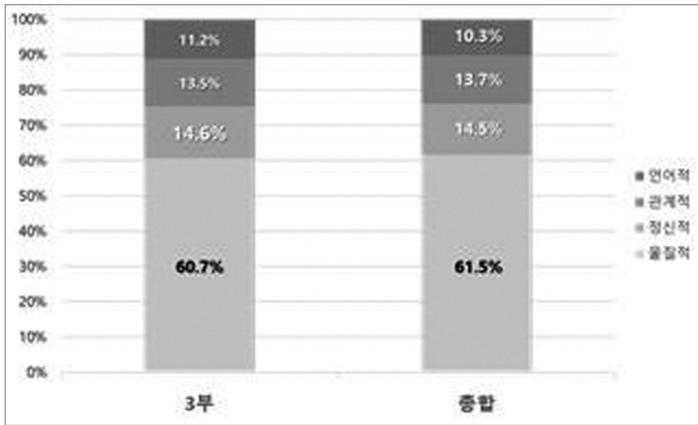


그림 5 어머니의 과정비율

여성 청소년 주체인 정윤하의 도완득의 성장을 돕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자신도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 주체이다. 정윤하의 과정 비율에서 특징적인 점은 언어적 발화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2부의 언어적 과정의 비율은 20.4%로, 다른 주체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정윤하의 발화 대부분은 도완득과의 대화이다. 도완득은 정윤하를 자신과 언어적으로 교류하는 주체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부로 가면 정윤하의 다른 과정 비율은 모두 줄어드는 반면, 물질적 과정은 크게 증가한다. 이는 정윤하도 3부로 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내용과 맞물린다. 여성 주체인 정윤하의 성장에 모델이 될 수 있고,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은 어머니이다. 정윤하의 어머니는 도완득과 정윤하의 교제를 막는다. 그러나 정윤하는 몰래 도완득을 만나고 교류하며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을 성취하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한다. 따라서 2부에서는 정윤하는 도완득과 대화를 통해 성장을 돕는 주체로 그려지지만 3부로 가면서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고 행동을 취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성인 여성 주체인 도완득의 어머니는 조사한 주체들 중 가장 빈도수가 적고, 영향이 적었다. 이 책에서 어머니는 도완득에게 사라진 존재, 그리운 존재로 나타난다. 도완득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사라진 어머니가 되돌아와 소통하는 과정이 있다. 어머니의 과정은 도완득의 과정과 비교해볼 때 관계적 과정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관계적 과정은 주체와 상황 참여자들 간의 관계를 정의해 준다. 3부에서 비로소 도완득이 사는 세상에서 관계 맺기 시작한 어머니의 참여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머니는 도완득이 성장하며 세상과 소통할 때 나타나 다른 주체들과 관계를 맺는 양상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과정 비율 양상은 성인, 사회적 약자라는 속성을 공유하는 아버지·삼촌과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아버지와 삼촌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끊임없이 도완득과 교류하고 도완득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들이 가진 속성과 고민,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그에 비해 어머니는 2부가 되어서 도완득과 대면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한다. 도완득은 갑작스레 나타난 어머니를 “그 분”이라고 부르며 낮설음과 거리를 표현한다. 도완득은 어머니의 모습을 관찰하며 그 주위를 맴돈다. 3부에서 도완득은 세상과 소통하며 성장해나가는 주체가 되었을 때 어머니와의 관계가 공고해진다. 이때 어머니 주체의 등장 빈도도 증가하였다. 또한 아버지·삼촌의 3부에서 언어적 과정의 비율에 비해 어머니의 언어적 과정의 비율이 높다. 이를 본다면 도완득의 성장 과정 전체에 어머니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과정 과정에 드러나기 어렵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어머니가 목소리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도완득의 언어적 과정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일치한다. 드러나지 않았던 주체들의 목소리가 어울려 가면서 도완득의 성장, 소통이 이루어져 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5. 나가며

본고는 청소년 주체가 작품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과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포착하기 위하여 동사성 분석을 실행하였다. 주변 인물의 가치는 사회적 속성에 따라 어떻게 그 동사성 양상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변해 가는 지 탐구하였다. 대표적인 청소년 소설로 『완득이』를 선정하여 동사성 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완득의 과정 변화 양상이 사회적 약자인 아버지·삼촌의 과정 변화 양상보다 담임교사인 이동주의 과정 변화 양상과 관련성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점, 상대적으로 여성 주체의 직접적인 관련은 적다는 점을 탐구할 수 있었다.

동사성 분석을 통해 양적으로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연구자의 편향된 관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모든 독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연구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연구자가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각자의 배경지식과 이념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본적으로 편향적이다. 이 편향적인 관점은 문학 연구자의 독특한 개성이 되어 문학 작품 해석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학 작품의 주체들은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다르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편향은 주체가 가진 사회적 속성에 따라 과소평가하여 그 영향력을 간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관적인 기준으로 분석하는 동사성 분석의 양적 접근은 주체들의 권력 관계, 나아가 사회적 속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효하다.

본고는 체계 기능 언어학의 동사성 분석을 통해 주체들의 사회적 속성이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 이 방법을 통해 문학 연구 방법론으로서 동사성 분석을 통한 양적 접근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 문학에서 중요한 화두인 성장에 다른 주체들과의 관

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사회적 속성에 따라 청소년 주체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질적 문학 해석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다. 향후 더 많은 작품들에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봄으로써 유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려령, 『완득이』, 창비, 2013.

2. 논문 및 평론

권미영·박보영,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이론으로 본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주체화 문제—영화 완득이에 대한 비판사회복지학적 접근」, 『한국융합인문학회』 1, 2013.

김화선, 「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성장’의 문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3, 2008, 279~300면.

나병철, 「청소년 시점의 두 유형과 성장의 문학교육적 의미」, 『청람어문교육』 53, 2015.

선주원, 「환상적 공간을 통한 가족 서사의 재구성: 2000년대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35, 2015.

성경수, 「청소년 문학과 문학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미림, 「다문화성장소설연구」, 『현대소설연구』 51, 2012, 373~401면.

이승연, 「사회과 텍스트 분석을 위한 비판적 담화 분석 방법의 이용: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8, 2016.

이지현, 「성장소설을 통한 현대소설 교육방안 연구—김려령의 『완득이』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이창수, 「비평담화분석을 위한 동사성 분석의 의미론적 모델 연구」, 『언어와 언어학』 56, 2012, 253~281면.

이해영, 「동사성 체계를 이용한 역사교과서 서술방식 분석—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2017, 217~235면.

정선주, 「소설 『완득이』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판타지 고찰—지젝의 이데올로기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Goatly, A. (2004). Corpus Linguistics, Systemic Functional Grammar and Literary Meaning—a Critical Analysis of 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Ihla do Desterro*, 46, pp.115-154.

Nguyen, H. T., Transitivity Analysis of “Heroic Mother” by Hoa Pham.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2(4), 2012, p.85.

Hardstaff, S., “Papa Said That One Day I Would Understand” Examining Child Agency and Character Development in Roll of Thunder, Hear My Cry Using Critical Corpus Linguistics.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Vol.46 No.3, 2015.

3. 단행본

이진경, 나병철 역, 『서비스 이코노미』, 소명출판, 2015.

주세형 외, 『장르, 텍스트, 문법』, 박이정, 6~8면.

Fish, S. E.,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i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Halliday, et al.,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Routledge, 2013.

Abstract

A Study on Aspect of Children's Development
by Transitivity Analysis
—Focusing on 『Wandeuki』

Kang Seohe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spect of growth in contemporary youth growth novels in the context of society and its surrounding characters. To do this, I tried to examine the aspect of children's development by selecting 『Wandeuki』 as a typical modern children's development novel. In order to capture the aspect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agency acting on the back of the novel, 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d using transitivity classification of systematic functional lingu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in the transitivity and the change of the agen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spect of transitivity change of Wandeuki i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 of the homeroom teacher than the father and uncle, who are social minor. In addition, there is little relation between mother and Jung Yoon-ha who is a female agency.

This study intends to show that the quantitative approach based on systematic functional linguistics can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ncy of literary works. Quantitative analysis can help to

overcome the biases that researchers have and to reveal the meaning of the social attributes of agency.

■ Keywords: 『Wandeuki』, transitivity, systematic functional linguistics, quantitative approach

■ 논문접수일: 2018. 05. 15. / 심사기간: 2018. 05.28~06.08. / 게재확정일: 2018. 06.10.